

【「오카야마 마라톤」을 끝내고】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11월 8일 기념할만한 제1회 「오카야마 마라톤」을 개최했습니다.
저도 4.5km의 판란코스에 참가했습니다.

중. 서지방 최대 규모의 마라톤 대회로,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준비해온
이 대회. 1만 4천여 명 이상의 주자가 오카야마 시내를 누비는 모습을
상상하고 흥분하는 반면,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현 외에서의 참가
선수 여러분이 즐길 수 있을까. 또한, 나 자신도 직전에 감기에 걸려
연습량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 과연 4.5km의 거리를 완주할 것인가. 그런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실전을 맞이했습니다.

당일은 비가 내린다는 일기예보도 있어, 날씨도 걱정이었습니다만,

「청명한 나라」의 저력으로 유지했고, 인사말을 위해 오른 스타터 대에서
본 것은 뒤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주자로 가득 차 있는 광경, 몸이
떨리는 감동을 기억하면서 판란코스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으로
30분 정도의 짧은 코스였지만 길가에서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과
하이터치를 나누며 기분 좋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골 직전에서 친구에게 추월당해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쫓아갔지만, 인파에 묻혀 끝까지 따라잡을 수가 없었던 것은 조금 유감이지만, 정말 좋은 4.5km였습니다.

그 후엔 골 지점인 시티 라이트 스타디움에 가서 마라톤 주자를 맞았는데 주자 여러분은 입을 모아 길가의 응원과 환호에 대해 많은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스타디움에서는 대회 스페셜 대사를 맡은 아리모리 유코 씨와 만났습니다. 아리모리 씨 자신도 8년 만의 정식 마라톤이라 도중에 조금 설까도 생각했었는데 길가에서 응원하시는 여러분의 끊이지 않는 성원에 힘입어 끝까지 달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해 처음 개최로서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적으로 1만 4천 명의 주자들과 4,300명의 자원봉사자 여러분, 길가에서 응원해 주신 13만 4천명의 여러분, 그리고 협찬해 주신 기업, 단체나 마을관계자를 비롯한 여러분 등 정말 많은 분이 하나가 되어 대회를 성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당일 TV 중계를 한 산요 방송 (RSK)의 이야기에 따르면, 마라톤 중계의 시청률은 20.6 %, 공유 (점거율)은 무려 50.3 %를 기록했다는 것. 이것은 실로 오카야마와 카가와에서 TV를 시청하신분의 반수가 마라톤을 시청했다는 기쁜 결과라 TV 앞에서 응원해 주신 많은 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빨리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대회 다음날 인 9일부터 11일까지 톱 세일즈와 오카야마시 국제우호 교류도시인 신죽시의 출장으로 인해 메일 매거진이 늦어진 것에 사과에 말씀을 드림과 함께 앞으로 「오카야마 마라톤」이 오카야마는 물론이고 중, 서지방을 대표하는 일대 스포츠 이벤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한층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